

# 송당 신화의 분화 방식에 대한 고찰

김진하\*

<차례>

- I. 서론
- II. 당 가르기와 신화의 분화
  - 1. 당 가르기의 단계들
  - 2. 바다로 버려진 아들과 한라산으로 쫓겨난 아들
- III. 서당 신화와의 결합
  - 1. 남신의 바람기 또는 여신의 부정
  - 2. 멧돼지와 돼지, 성적 일탈과 육식의 금기
- IV. 신의 직능의 분화
  - 1. 당신의 직능
  - 2. 송당리의 서당신 강진애기
- V. 결론

## 국문요약

제주도 신당의 원조로 알려져 있는 송당 본향의 신화는 뚜렷한 계보를 형성하면서 제주도에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송당 신화의 분화 방식을 보면 단일하지 않다. 신화의 분화는 신당이 자리 잡은 지리적 위치와 그 지역 문화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갈라져나간다. 따라서 1차 당 가르기는 송당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설이 없지만 다른 마을로 갈라져 나간 아들이나 며느신들과의 관계는 단일한 신화의 변형으로만 볼 수 없다. 2차 당 가

\* 서울 양정고등학교 교사

르기에서는 아들신이 바다로 버려지는 경우와 한라산으로 쫓겨나는 경우에 따라 신화에도 차이가 있고 주인공의 위세도 다르다. 또한 송당계 신화의 주인공이 다른 여성신을 만났다가 다시 갈라서는 3차 당 가르기의 분화 방식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경우에는 불화의 원인이 단지 여신의 부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신이 주도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불화의 원인이 육식금기의 위반인 경우와 성적 일탈인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몇 단계에 걸쳐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짜인 송당 신화의 구조는 결론적으로 제주도 신화와 문명의 전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화구조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동안 송당 신화에서 잊혀온 송당 마을 안의 서당(칠일당)의 존재와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송당 신화, 당 가르기, 육식의 금기, 문명의 단계, 화소

## I. 서론

제주도 당신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몇 개의 주요한 신과 신화가 지역별로 일정하게 분포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크게 제주시와 제주 동부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송당계 신화와 그보다 좁게 토산 지역에 있는 여신 신화, 남원과 서귀 지역에 분포하는 신화, 그리고 서귀포 호근에서 대정 지역에 분포하는 신화, 안덕 지역의 신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또한 각각의 신의 계보에 따라서 지역별 분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sup>2)</sup> 물론 그 분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신화들이 혼동되고 뒤섞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마을 안에서도 서로 다른 본풀이를 가진 신화들이 공존하기도 한다. 한편 몇 개

1) 현용준,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113쪽.

2) 고대경, 「신들의 고향」, 409~412쪽.

의 주요한 신당 신화가 기원한, 다시 말해 처음 좌정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은 하나의 신의 독점적 영향력의 확대가 아니라 신들의 친족관계로 이루어진다. 신화는 당 가르기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확산되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원리와 양상이 존재한다. 특히 송당계 신화의 경우 당 가르기의 원인과 양상이 남녀신의 혼인과 불화, 성별과 기능의 일정한 대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런 과정은 바로 송당 신화의 확산과정이기도 하다.

송당계 신화라고 하면 송당 신화의 주인공인 소천국과 금백조의 신화에 그 사이에서 난 자손들의 신화들이 덧붙여 있는 모든 신당들의 신화를 통칭한다.<sup>3)</sup> 따라서 모태는 소천국과 금백조의 결합과 분리로 나타나는 송당 본향의 신화이다. 편의상 이를 송당계 신화의 1차 신화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거기에 아들신이 태어나고 다른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를 2차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용궁에서 온 며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렛당 신화는 송당계 신화에서 보면 3차 신화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각 신당의 신화들은 하나의 기본형을 가지고 일정한 변이형을 이루면서 여러 마을로 흩어져 나간다. 그래서 용궁공주가 주인공인 서당신화(이렛당 신화)는 송당계 신화와는 무관한 다른 계통의 신화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3차 신화의 발생방식까지 드러내면 송당 신화의 분화과정은 전체적인 체계를 드러낸다.

3) 현용준, 위의 책, 87쪽.

## II. 당 가르기와 신화의 분화

### 1. 당 가르기의 단계들

송당계 신화의 당 가르기는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송당에 터를 잡은 남신 소천국과 여신 금백조가 혼인하여 함께 살다가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라선 경우이다. 이 경우 당 가르기는 송당 마을 안에서 두 개의 신당으로 나누어지는데 농경문화를 이끄는 여신 금백조가 수렵문화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신 소천국을 제압하고 위쪽을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당 가르기는 소천국과 금백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부모로부터 쫓겨나 동쪽 바다의 용궁으로 흘러들었다가 용왕의 셋째 공주를 아내로 얻고 강남천자국에서 용맹을 떨친 뒤 위풍당당한 장수가 되어 제주섬으로 귀환한 다음에 일어난다. 장수신이 되어 귀환한 아들 문곡성은 부모와 갈등하지만 부모가 좌정한 송당을 피해 옆 마을로 좌정한다. 아들신의 탄생, 이것이 제2차 당 가르기다. 그런데 여기에 용궁에서 온 공주의 행적이 문제가 된다.

동해 용왕의 셋째 딸의 이야기가 가장 풍부하게 나타나는 토산 옷당 본풀이를 보면 용왕의 셋째 딸인 신중애기(신중도, 신중 부인)는 남편인 바람웃님과 함께 제주도로 들어오지만 하나의 신당에 함께 좌정하지는 못한다. 바람웃님과 함께 제주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공주는 남편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서서 한라산 유람을 간다. 그리고 산에서 목이 말라 멧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는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남신과 불화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자 바람웃님은 또 다른 여자인 금상을 첩으로 삼게 된다.

용왕의 셋째공주가 신격화된 신당은 '서당'이나 '이렛당'으로 통칭되

며 송당계 남신이 좌정한 '본향'과는 다른 기능을 갖게 된다. 며느리 신의 등장, 송당 신화와 서당 신화의 결합은 3차 당 가르기다. 여기에 덧붙여 4차 당 가르기로 송당 신화를 차용하거나 변이시키는 경우들도 있다. 이 경우는 송당 신화와와의 직접적인 계보나 친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화를 차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일종의 신화 훔치기인데, 특히 송당리와 인접한 세화리 본향 본풀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신이 등장했기 때문에 기존의 신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속시키려는 전략에서 기인한 경우이다.

이상의 단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신화 - 소천국과 금백조의 만남과 헤어짐
- 2차 신화 - 아들신의 탄생과 축출(문곡성 신화)
- 3차 신화 - 며느리 신의 탄생(서당 신화와 결합)
- 4차 신화 - 송당 신화의 변이와 차용(세화 본향 신화)

송당계 신화의 당 가르기의 원인과 방식은 근본적으로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신화에서 남신과 여신의 결혼과 이혼은 단지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송당계 신화에서 분화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각각의 신들이 대표하는 문화양식의 차이와 또한 성의 차이에 따른 기능상의 분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소천국과 금백조의 불화가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대립인 것처럼 부모신과 아들 문곡성과의 대립은 장수신의 등장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신과 며느리신 용궁 공주와의 불화와 그에 따른 당 가르기의 원인은 용궁공주 신이 상징하는 여성의 직능, 즉 출산, 육아, 치병과 관련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서당신은 여성의 삶을 위무하는 신이다. 특히 문곡성 신화에서

처와 첩이 어는 정도 공존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서당신화의 풍부한 모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송당 신화의 화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전형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변이형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송당 신화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대부분 가장 풍부한 본풀이를 기본형으로 삼아 변이형을 살펴보아왔다.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송당 신화로 인정받아 온 송당 본향 본풀이나 김녕 궤내깃도 본풀이에서는 아들신이 용궁 모험을 겪으며 용궁의 공주를 처로 데리고 제주도로 귀환하지만 제주 귀환 이후의 용궁 공주의 행적이 사라져버리고 있다. 궤내깃도 신화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며느리신은 공백으로 남게 된다. 이미 또 다른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김녕리의 궤내깃도는 송당계 신화에서 아들신으로서의 차례도 한참이나 뒤로 밀리고 있다.<sup>4)</sup> 따라서 송당 신화의 전형은 며느리신이 서당 할망으로 좌정하는 이야기까지 담은 문곡성 신화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여전히 남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송당계 아들신으로 전승되는 몇몇 본풀이에서는 아들신이 부모로부터 갈라져 나오기는 하지만 용궁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한라산으로 가서 산신이 되는 유형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양 모험이 없는 아들신의 이야기를 단지 용궁 모험담의 누락으로 보기에는 그 분포가 넓고 본풀이의 성격에도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를 전혀 다른 두 개의 신화 발생의 원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줄고,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제30호

## 2. 바다로 버려진 아들과 한라산으로 쫓겨난 아들

송당 신화에서 2차 단계로 당 가르기가 나타나는 아들신들의 원형은 첫째 아들 검홀 문곡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위 큰 심방이나 무가의 음송(吟誦)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권위 있는 심방들이 남긴 본풀이는 대개 “큰 아들은 검홀 문곡성, 둘째 아들 대정 광정당, 셋째 아들 정 의 시선당, 넷째 아들 성안 내왓당”<sup>5)</sup>하는 식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첫째 아들에서 넷째 아들까지는 일치한다. 아들신들의 분포를 보면 송당 본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검홀(구좌읍 덕천리)의 문곡성 신이 첫째 아들인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 아들당의 분포는 제주섬 전체로 보았을 때 지정학적 함축이 있다. 이 세 곳은 조선 시대에 삼읍으로 나누어졌던 제주의 행정구역에서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 넷째, 넷째 아들이 각각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에 좌정했다는 것은 송당 본향의 후손들이 정치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장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송당 본향의 아들신들이 제주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더욱이 조선 말엽에 이원진 목사에 의해 여러 신당이 탄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당 본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의아한 일이다.<sup>6)</sup> 특히 이 삼읍에 위치한 세 신당은 다만 본풀이에서만 상징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력한 신당으로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현재 남아있는 본풀이 속의 구전만 보더라도 송당 본향

5)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416쪽(고대중 구송), 417쪽(김오생 구송), 419쪽(양기정 구송).

6) 고대경, 『신들의 고향』, 299쪽.

의 후손들은 ‘아들아기 열여덟, 딸아기 스물여덟, 손지 방상 삼백일흔여덟’<sup>7)</sup>에 이른다고 소개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들 당으로 본풀이가 전하는 신당만 해도 실재로는 열여덟을 훨씬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히 상상하기 쉽지 않다. 이미 1960년대에 송당계 신화, 즉 송당 신화에서 갈라져 나온 신화들을 간직한 신당들의 분포를 조사한 현용준의 작업을 보면 제주도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 송당계 신화들이 고루 퍼져있음을 볼 수 있다.<sup>8)</sup>

무속의 특성상 한번 형성된 송당 신당의 위력은 기이하면서도 가공할 힘을 지역 공동체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도 그 신의 위력을 빌리기 위하여 후손임을 자처하여 가지를 갈라나갔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추정은 무속의 음습함을 과장하는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송당 신화의 신화소 속에는 무속의 음습함을 드러내는 금기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송당 신화의 확산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 신화를 독점한 씨족이나 혈족의 이동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여러 마을에서 송당 본향의 자손들이 김씨 할아버지로 통칭되고, 당골(단골)이 광산김씨 집안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광산김씨가 섬의 전역으로 퍼져나간 추세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sup>9)</sup> 그때 송당 신화는 광산 김씨의 조상신이 되

7)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157쪽.

8) 현용준,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113~114쪽, 142~143쪽.

9) 고대경, 『신들의 고향』, 324쪽. 송당계 신화가 반드시 광산 김씨 집안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송당리의 송당본향보존회 회장이면서 본향의 상단궐 격을 맡고 있는 김호중(광산 김씨)씨의 증언에 따르면 송당의 경우 광산 김씨가 상단궐이 된 것은 현재 4대째에 지나지 않고 그 이전에는 김해 김씨가 상단궐이었다고 한다. 송당에 터를 잡은 것도 김해 김씨가 먼저였으며, 김해김씨의 시조묘가 당오름 동쪽끝자락에 있다고 전한다. 송당 마을의 한가운데 위치한 당오름은 이 마을의 정신의 본향으로 전해진다. 현재의 금백조 당이 있는 당내도 이 당오름에 인접한 한



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무리가 있다. 한 가문의 조상신이 어떻게 모든 마을의 본향신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기원을 더 거슬러 올라 채회주의 <리참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라 마지막 왕의 공주로 보면 막강한 고대정치세력의 역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런저런 사정에 대해서는 별개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sup>10)</sup>

문곡성 신화를 가장 풍부하게 전승한 것은 진성기가 채록한 이상문 심방의 구송이나 강만원 심방의 구송이다.<sup>11)</sup> 이 본풀이를 보면 송당계 신화에서 차례가 뒤로 밀리는 여러 아들신들의 본풀이에 대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소가 매우 뚜렷하고 풍부하게 들어있다. 문곡성 신화의 화소를 단순화하면 첫째, 소천국과 금백조 사이에서 태어난 문곡성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죄로 무쇠석함에 담겨 바다로 버려진다는 것, 둘째, 용궁에서 용왕의 셋째 딸과 인연이 닿아 목숨을 구했으나 지나친 대식성으로 인하여 다시 용궁공주와 함께 쫓겨난다는 것, 셋째, 부부가 함께 강남천자국으로 들어가 문곡성이 용맹한 장수의 능력을 발휘하여 난리를 평정함으로써 높은 관직을 하사받는다는 것, 넷째, 강남천자국에서의 벼슬을 마다하고 제주도로 귀향하여 부모인 소천국과 금백조에 버금갈만한 신성한 위용을 과시함으로써 한라산을 다스리는 수호신이 되었다는 것 등이다. 이런 화소들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는 까닭에 송당 신화의 2차 신화는 뛰어난 영웅서사시의 면모를 명실공히 갖추게 된다.

그런데 송당 신화에서 2차신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문곡성 신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특기할 만한 변이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송당계 신화

끝 냇가에 위치하고 있다.

10) 줄고, 김진하,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1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이상문 구연, 송당 본향 본풀이, 408~415쪽, 강만원 구연 토산 본향 본풀이, 468~472쪽.

는 소천국과 금백조 부부의 결별과 아들과의 불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불화 등에 의해 차례로 당 가르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질서 정연한 구조와는 다른 변형된 본풀이를 가진 신당들이 존재한다. 송당 신화의 분화 단계를 송당계 신화와 이렛당 신화의 결합으로 보는 것을 기본형으로 가정할 경우 먼저 이렛당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송당 신화의 아들을 본향신으로 모시는 많은 본풀이들 가운데는 부모로부터 쫓겨난 아들이 용궁으로 흘러갔다가 용궁공주와 혼인한다는 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원리상으로는 송당계 본향의 남자신 소천국이나 그 아들신과 이렛당계의 여신으로 짝이 맞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1차 신화 자체를 자손의 신화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변이형들도 존재한다. 송당 마을과 바로 인접한 평대리 본향의 명동이 소천국의 경우에는 실상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이야기에 도 용궁모험담이 나타나지 않는다. 구좌읍 평대리는 송당리와 동쪽으로 인접한 마을로 해변에 닿아있는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이 마을의 본향 본풀이에 따르면 금백조의 다섯째 아들이다.

장주근이 채록한 고대중 심방의 구송을 보면 평대리 갯마리(지명)에 좌정한 명동소천국은 백조할머니(백조할망)의 다섯째 아들이다.<sup>12)</sup> 그런데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소천국이다. 기이한 일이다. 다른 점이라면 아버지 소천국과 구별되도록 ‘명동이(명동이)’라는 지명을 붙여서 명동소천국(명동소천국)이라고 명명했을 뿐이다. 명동소천국은 해안 마을에 좌정했으면서도 송당을 넘어 교래 넘어 한라산을 무대로 사냥을 하는 신이다. 그리고 처신의 이름은 ‘정송이 빌레 송씨할망’이다. 그런데 명동소천국은 사냥을 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길에서 서

1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18쪽.

글피 우는 한 여자를 발견하는데 그 여신은 '오설령이 따남애기 조막손이 단단춘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소천국은 그 여신이 가여워 첩으로 맞아들이고 마는데, 그 바람에 본처인 송씨할망과 갈라서게 된다. 이것이 평대리 본풀이가 전하는 내용이다.

평대리 본향 본풀이는 송당 신화의 2차 신화, 즉 아들의 신화로 구송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1차 신화 자체가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송당 신화의 2차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이야기의 내용이나 전개가 전혀 다르다. 부모로부터 쫓겨나서 용궁으로 가고 강남천자국에서 무용을 쌓아 제주도로 귀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특히 부모와 불화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을 뿐더러 명동 소천국의 생활방식과 활동무대는 실상 알송당 '곱은이마루(고부니마루)'에 좌정한 소천국과 거의 흡사하다. 수렵생활을 하는 소천국신은 금백조에 밀려 알송당 곱은이마루로 좌정했다. 하지만 사냥터는 아래쪽으로 평대와 세화를 거치고 위쪽으로 교래(橋來)와 한라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평대리의 신당본풀이는 실상 금백조의 자손이 아니라 소천국 신화의 고향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동소천국의 부인이 (정송이 빌레) 송씨 할망이었다는 대목이 주목을 끈다. 소천국과 송씨 할망이 부부간이이었다는 본풀이는 현재 송당에 남아있는 사라홀당(송씨 할망당)과 소천국당 사이의 관계를 추측하게 해준다. 평대리 명동 소천국의 신화가 소천국 신화의 한 변이형이 아니라면, 현재 송당 본향 본풀이에는 전하지 않지만, 곱은이마루의 소천국 신과 사라홀의 송씨 할망이 부부간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의 개연성은 사라홀당 역시 송씨 할망당으로 사냥신을 모시는 당인 까닭이다. 남자 사냥신 소천국과 여자 사냥신 송씨 할망이 부부 사

이였다는 개념적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송당 신화에서도 수렵문명만 존재하던 시기에는 소천국과 송씨 할망이 행복한 결합을 이루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달한 농경문화를 가진 강력한 여신 금백조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체제는 와해되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확증할 수 없는 짐작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소천국과 송씨 할망이 본래 부부간이었다면, 금백조와 결합했다가 갈라선 소천국은 오백장군의 딸과 결합하지 않고 송씨 할망과 결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송당리의 신당을 기준으로 보자면 소천국당과 사라홀당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도 관련도 없이 다만 공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례는 교래리 본향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회천의 새미산신또나 논홀 산신또의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13)</sup> 이런 경우에는 모두 용궁모험담이 생략되거나 망실된 것일까? 본풀이를 고찰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생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용궁모험담이 없는 아들 신들의 신화를 보면 영웅의 모습이 아버지인 소천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려진다. 즉 그들은 대개 원시적인 수렵생활을 하는 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산신’이라는 명칭도 쉽게 따라붙는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긴 걸까?

송당 신화에서 아들신들의 본풀이를 비교해보면 부모로부터 쫓겨난 아들신들의 이동경로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바다로 버려져서 여러 가지 모험을 통해 ‘장수신’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라산으로 버려져서 별다른 모험이나 외계문명의 경험 없이 수렵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산신’인 경우가 그것이다. 바다의 경험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아들들과 한라산으로 들어가서 아버

13)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366~367쪽.

지 소천국과 똑같이 수렵생활을 계속하는 산신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한라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고대인들의 생활양식과 해양 너머의 경험을 통해 더욱 발전한 문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뚜렷이 양분되는데, 사실 이런 두 가지 태도는 제주사람들의 오랜 두 가지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라산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산신의 경우는 별다른 특징도 없고 다만 고대적인 생활방식으로서 수렵을 계속 이어나기는데, 용궁의 모험을 거친 아들은 위풍당당한 장수신으로 발전한다.

### Ⅲ. 서당 신화와의 결합

송당(계) 신화의 분화는 서당 할망 신화(이렛당 신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에서 이렛당 신화는 각각 7일, 17일, 27일에 제를 올리는 여신을 모시는 신당과 관련된 신화를 말하는데,<sup>14)</sup> 송당계 신화의 주인공들과 그 직능을 달리하는 이 여신들은 송당계 남신의 부인이나 첩으로 되어있는 점이 흥미롭다. 송당계 남신, 즉 소천국과 금백조 사이에서 난 아들 열여덟은 제주섬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들은 홀로 쫓겨나지만 어느새 어른이 되어 혼인을 하게 되고 각 마을의 분향신으로 자리 잡는다. 그 배우자들이 바로 이렛당의 여신들이다.

14) 현용준,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101쪽. 표선면 토산리 웃당 본풀이.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서 토산 본향 본풀이(460-472쪽). '서당'은 '유아를 위한 당'을 일컫으며 그 신의 명칭은 '일외포', '일외한집', '서당 할망', '허물 할망' 등으로 불리지만 그 분포와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신당의 명칭은 '서당'이고 그 신의 명칭은 '서당 할망'으로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서당'이라는 신당의 명칭은 널리 쓰이지만 서당에 좌정한 '서당 할망'의 이름은 마을과 신당에 따라 다르다. '서당 할망'은 따라서 신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직능의 명칭이다.

송당계 2차 신화의 원형인 문곡성 신화를 기본으로 보면, 부모신으로부터 쫓겨난 문곡성이 용궁에까지 떠나려갔을 때 용왕의 셋째 딸과 맺어지게 된다. 그리고 문곡성의 대식성 때문에 다시 용궁에서 쫓겨날 때 용왕의 셋째 딸을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강남천자국에 가서 난리를 평정하는 무공을 쌓고 함께 제주섬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송당계 신화는 문곡성으로 대표되는 아들이 제주섬으로 귀향한 이후 각 마을의 본향신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력들을 전하는데, 흥미롭게도 각 본향의 신화에 따라 용궁 셋째 딸의 종적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토산 옷당이나 성안 내왓당의 '천자또 마누라님'처럼, 직능을 가진 여신으로 좌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현용준은 일찍이 송당계 아들신의 혼인이나 당신으로서의 좌정유래를 상세히 해설하고 있는 <김녕 켈내깃당 본풀이>나 <성안 내왓당 본풀이>를 송당 신화의 전형적인 기준으로 삼았다.<sup>15)</sup> 다시 말해 가장 많은 화소와 풍부한 이야기들을 담은 본풀이들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그가 분석한 화소들을 기준으로 본풀이들을 구분해보면 이렛당 신화도 하나의 원천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렛당 신화는 토산 옷당 계열 말고도 서귀포 호근동이나 예례리에 있다.<sup>16)</sup> 그것들은 각각의 화소의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화의 분류에서 본풀이의 화소의 풍부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각각의 화소들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화소가 해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송당계 신의

15) 현용준, 같은 책, 90쪽.

16) 현용준, 같은 책, 105쪽.

아들신이 부모한테서 쫓겨나서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확정된 기준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다른 마을로 가서 산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별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신화를 지역과 유형에 따라 세 개의 계열로 나누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송당계 신화의 내적 구조로 보면 송당계 아들신과 이렇듯 신화와의 결합 방식은 단일유형으로 환원되지 않고, 용궁결합형과 한라산결합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 1. 남신의 바람기 또는 여신의 부정

송당 본향계 아들신과 용궁계 여신과의 결합, 또는 산신계 여신과의 결합에서 주목할 것은 이 3차 신화에서도 1차 신화에서처럼 혼인한 두 신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 갈라서게 되고 다시 남신은 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1차 신화에서 금백조와 갈라선 남신 소천국이 오백장군의 딸과 결합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혼인과 재혼이 반복되는 이 구조의 신화적 의미를 따지는 일은 옛 제주 사람들의 혼인관이나 생활양식과 비교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각 지역의 본향신으로 등극하는 남신들이 결국에는 두 여신을 거느리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송당 본향계의 남신과 이렇듯계의 여신의 결합이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문곡성 본풀이나 토산 웃당 본풀이에 나타난다. 그러나 토산 웃당 본향 본풀이(고대중 심방 구송)<sup>17)</sup>에서 보면 송당에 이렇듯신인 ‘송당머리 강진역이(송당머리 강진애기?)’가 있었음이 명백함으로 송당 마을 안에서도 일정한 구조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본향의 남신이 여신과 갈라서게 되는 이유는 토산 웃당의 본풀이에서처럼 여신의 부정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평대리 갯머리

1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26쪽.

의 명동소천국처럼 남신의 바람기 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여신의 부정이 원인이 되는 본풀이가 훨씬 많다. 현용준이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여신이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었다’는 화소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sup>18)</sup> 다만 남신의 바람기가 아니라 여신의 부정을 파경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의 의미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는다.

이렛당신이 되는 여신이 저지르는 부정인 ‘돼지발톱에 고인 물을 마심’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찍이 일본제국주의 시기에 제주신화 본풀이를 채록한 다카마츠와 아키바의 『조선무속의 연구』를 보면 본풀이의 그 대목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산독색이 발굽에 물이 갈나시난/ 수건을 우에 덤푸고 물을 빠라 먹더니 / 산돛소리 하나 목으로 드러가니, 괴이히 생각하고 / 토산으로 도라와서 낭군을 대하난/ 엇지 부인이 몸이 비리였오 하니...”<sup>19)</sup>

(멧돼지 발굽에 물이 고여 있기에/ 수건을 위에 덮고 물을 빨아 먹으니 / 멧돼지의 술(털)이 하나 목으로 들어가니, 괴이하게 생각하고 / 토산으로 돌아와서 낭군을 대하니 / 어찌 부인이 몸이 비리었소? 하니 ...)

이 대목에 따르면 여신은 멧돼지 발굽에 고인 물을 먹었다. 이 말은 정말 곧이곧대로 멧돼지 발굽에 고인을 물을 빨아 먹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인가? 정말로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마셨다는 말일까? 새삼 물을 것도 없이 이 대목은 성적 일탈을 매우 외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멧돼지 발굽에 고인 물이란 실상은 매우 음탕한 성의 묘사로 보인다.<sup>20)</sup>

18) 현용준,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102쪽.

19) 다카마츠, 아키바, 『조선무속의 연구』, 315쪽.

20) 고대경, 『신들의 고향』, 315쪽.



쉽게 말해서 멧돼지 발굽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것은 성행위를 했다는 말이다. 여신이 바람을 피운 것이다.

『조선무속의 연구』의 채록에서는 여신의 외도가 어떻게 적발되는지 암시적으로만 나타나 있다. 멧돼지의 솔(털)이 하나 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발각에 대한 암시이다. 물론 그것도 외도의 흔적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본풀이에서는 이 돼지털을 구워먹어서 냄새를 풍겼다는 식으로 전하기도 한다. 멧돼지 발톱에 고인 물을 먹었다는 것이 성행위의 암시임은 돼지털이 아니라 냄새로 들키기도 한다. 몇몇 본풀이에서는 멧돼지 발굽에 고인 물을 먹은 여신에게서 종경내(지린내)가 나서 남신에게 적발되기도 한다. 그런 본풀이에서는 이야기의 순서가 바뀌어 종경내가 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멧돼지 발굽에 고인 물을 먹었다는 식으로 전하기도 하는데, 이 종경내 역시 성행위의 강력한 암시이거나 흔적인 것이다.

## 2. 멧돼지와 돼지, 성적 일탈과 육식의 금기

며느리 여신은 성적 외도의 발각으로 인하여 남편인 송당계 아들과 헤어진다. 그런데 멧돼지 발톱에 고인 물을 먹었다는 사실은 애매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멧)돼지의 그을린 털을 먹는다는 말에 대한 다의적 해석에서 기인한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 대목을 ‘육식의 금지’라는 금기와 연관시키기도 한다.<sup>21)</sup> 그것은 송당 신화에서 소천국이 소를 잡아먹음으로써 금백조와 갈라서게 된 대목과 비교하여 여신이 육식을 했기 때문에 남신과 갈라서게 되었다는 식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구좌읍 김녕리의 퀘내깃도나 세화리의 금상

21) 현용준,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102쪽.

넘처럼 돼지고기로만 대접을 받는 당신들도 있는데 새삼 돼지고기가 금기여야 할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 제주의 신당에서는 여신에게는 모두 육식이 금기이고 남신에게만 허용된다고 봐야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멧돼지 발톱과 돼지발톱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이다. 아마도 당신화의 구전 형태로 보자면 멧돼지 발톱의 물을 마셨다는 토산 이렛당과 같은 부류의 신화들이 더 예스런 형태일 것이다. 그것은 물론 제주의 산과 들에 멧돼지가 생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풀이의 분포에서 보자면 멧돼지 발톱이 나오는 경우에는 성행위에 대한 암시가 확실히 강하고 돼지발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육식의 금기 쪽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대 변화에 따른 해석의 변천이라 할 만하다.

한편 3차 신화에서 불화의 원인은 주로 여신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하는 본풀이들이 많다. 여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보면 여신이 그만큼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양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때 여신의 바람기는 남신과 대등한 성적 주도권의 행사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신의 바람기가 아니라 남신의 바람기로 갈라서게 되는 평대리 본향 본풀이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돼지의 금기가 육식의 금기와 관련되는지 성의 금기와 관련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송당에 인접한 평대리의 당본풀이 가운데 그나마 온전한 줄거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두 개만 비교해 봐도 그 차이가 곧 드러난다. 진성기가 채록한 평대리 신선당 본풀이<sup>22)</sup>(김병생 심방 구송)의 경우에는 신선또의 배필이 된 공주가 일곱 명의 아기를 낳고 난 뒤 고기가 당겨서 잔치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게 된다. 신선또는 부인

22)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428~429쪽.

한테서 종경내(동경내)가 난다고 하여 부인과 헤어지는데, 이 부인이 서당 할마님(이렛당신)이 된다. 그래서 서당에 좌정한 신인 서당 할망은 돌제(돼지고기제사)를 받게 된다.

한편 같은 평대리의 수되깃당 본풀이에서는 여신 수되기 한집이 서당 신인데 신선당과 마찬가지로 남신(할으방)한테서 쫓겨난다. 그 대목을 풀어보면 이런 식이다.

“들이 부부가 되어 사는데, 하나 둘 아이를 낳다 보니 일곱 명까지 낳게 되자 입에 기름기가 없어 고기가 먹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 되니 하루는 돼지 발자국에 물이 반짝반짝하니 빨대를 대어 그물을 빨아먹으니 돼지털이 콧구멍에 박하여 그런 연유로 날팻내와 생나무 냄새가 났다.”

그래서 남신과 갈라선 이 여신 역시 서당 할망이 되어 제물로 돼지고기를 받아먹게 되었다. 송당계 신화에서 육식의 금기로는 무엇보다도 1차 신화에 나오는 소천국의 육식의 금기가 먼저 떠오른다. 수렵의 신인 소천국은 농경이나 목축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축으로서의 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발갈이의 주요 수단인 소를 잡아먹어버리게 되고, 그 이유로 금백조와 살림을 나누게 된다. 수렵문명과 농경문명은 식량 생산의 방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공존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금백조가 상징하는 농경문명은 농사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는 것을 금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소에 대한 이런 금기가 모든 육식에 대한 금기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맑은 조상’인 금백조는 일체의 육식을 금한다. 그래서 금백조 신전에 바치는 제물도 쌀밥과 흰떡, 오색과일과 바닷고기에 한정된다. 그런데 금백조의 아들로 잘 알려진 김녕리의 꿩내깃도는 아버지인 소천국처럼 육식을 즐겨한다. 그러

나 신앙민들이 소를 제물로 쓸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돼지를 제물로 받아먹는다. 같은 송당계 신화이면서 육식을 금하는 금백조신의 견지에서 보면 케네깃도 신화는 오히려 아버지인 소천국의 성격을 이어 받고 있다. 이 점은 달리 말하면 송당계 신화가 남신계와 여신계로 다시 성격을 나누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남식-육식, 여신-육식 금기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 IV. 신의 직능의 분화

송당계 신화가 분화되는 양상과 분포를 살펴보면 소천국이나 금백조가 주인공인 1차 신화나 아들신들도 가지를 갈라 나가는 본향신들의 신화 외에도 새로운 성격의 신화들이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용준의 작업에서 지적되고 있듯이<sup>23)</sup>, 송당계 신화에서 금백조의 아들들은 여러 마을의 본향신으로서 터를 잡고 있음에 반하여 용국에서 온 셋째 딸로 구송되는 며느리 여신들은 이렛당(칠일당, 七日堂)의 당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차 신화인 소천국과 금백조의 결합과 분리에서 본향을 차지하는 것은 여신인 금백조이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가지를 갈라나가 좌정한 각 마을의 본향에서는 보통 남신인 아들이 좌정하고 있고, 소위 이렛당에는 그의 부인인 용궁의 공주나 또 다른 첩신들이 차지한다. 그러나 송당의 신당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남신과 여신은 살림을 분산하여 살고 있는데, 그 자손대에 이르면 남신이 차지한 본향신과 여신이 차지한 이

23) 현용준,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102쪽.

렛당신으로 분리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본향(本鄉)이라는 명칭은 마을에 따라 혼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직능과 역할에 비추어보면 남신과 여신의 분리가 본향신과 이렛당의 분리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로 보인다.

### 1. 당신의 직능

이렛당계 여신이 송당계 남신과 결합하여 여신의 직능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신화 속에서는 쉽게 확인된다. 2차 신화의 원형인 첫째 아들 문곡성 본풀이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쫓겨난 문곡성이 무쇠석함에 담겨 바다를 떠돌다가 용궁에 도달하였을 때 문곡성을 살려내고 혼인한 것은 용왕의 셋째 딸이었다. 동해 용왕의 셋째 딸이라는 것은 제주섬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 바다의 용궁을 뜻하는데, 제주 동부에 터를 잡은 송당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동쪽 바다로 버려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쨌든 용궁에 흘러간 무쇠석함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던 문곡성을 불러낸 것은 셋째 공주였으니 셋째 공주는 문곡성의 생명의 은인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연으로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이들의 결합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문곡성은 셋째 공주와 함께 용궁을 떠나서 강남천자국에 이르고 거기에서 용맹한 장군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막강한 권능을 인정받고 제주도로 귀향했던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영웅의 탄생에만 주목하면 금백조의 아들신의 강력한 위세로 각 마을로 흩어져나간 양상만 드러나지만 문곡성과 함께 제주로 온 셋째 공주의 행방에 주목하면 새로운 신화가 부각된다. 용궁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따라 제주로 들어온 공주의 행방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이 여신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렛당이다.

송당 신화에서 2차 신화는 처음에는 주인공이 아들신 하나인 것 같지만 용궁공주의 직능 여부에 따라 주인공이 둘이 되기도 한다. 이렛당 신화가 명백한 곳에서는 전반부는 송당계 남신의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용궁공주의 이야기가 된다. 송당 본향 신화와 이렛당 신화의 결합과 분리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각 마을의 본향당에는 아들신이 좌정하고 이렛당에는 본향신과 이혼한 여신이 좌정한다.

송당계 신화의 분화와 그에 따른 신들의 직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당 가르기 단계	신의 직능
1차 : 부모신	소천국 - 사냥신 금백조 - 농경신 (송씨 할망 - 사냥신)
2차 : 아들신 열여덟	문곡성 - 장수신 명동 소천국 - 산신
3차 : 며느리신+첩신	신중 부인 - 육아의 신 금상 - 육아의 신
4차 : 변이형	천자도 - 학문의 신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신당의 확산과 새로운 신의 등장 사이의 관계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애초에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신당들을 지역과 기능에 따라 나누었던 방식에 더하여 문명사적 관점을 추가하는 것이다. 곧, 송당계 신화는 송당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그 신들의 직능은 근본적으로 해양문화와는 관련이 없다. 심지어 문곡성 신화는 용궁모험담을 담고 있으나 문곡성의 직능은 한라산 수호신이거나 수렵신의 역할을 맡을 뿐이다. 해변 마을의 신당에까지 송당계 신화가 확산된 김녕의 궤내깃도나 제주시 내왓

당의 천자또 마누라의 경우에도 그 직능은 해산물의 수확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송당계 신화는 내륙문화, 곧 수렵(소천국과 문곡성)이나 농경(금백조) 문화를 대표하는 신화인 것이다. 한편 용궁공주로 제주에 들어온 며느리신인 신증부인이나 그밖에 송당계 산신의 배필이 된 처나 첩의 여신들도 역시 해양생활과는 무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며느리 여신들은 서당, 곧 어린 아이의 육아와 치병을 담당하는 신들이다.

송당계 신들의 지역적 분포는 서로 다른 신당 문화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송당계 신화에서 며느리신의 등장을 송당계 신화와 서당 신화(이렛당 신화)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공간적이고 공시적인 설명만으로는 당 가르기가 일어나면서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진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당 가르기에 의해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신화의 분화는 신의 발생과 기능의 분화에 따른 역사적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 첫 단계에서 소천국이나 송씨 할망이 상징하는 것은 수렵생활문화이다. 소천국 신이 생활하는 방식은 원시적인 수렵생활에 가깝다. 소천국의 아들로 구송되는 문곡성이 대포를 쏘다던가 명동 소천국이 마세기총(사냥총)을 가졌었다는 구송도 있지만 송당의 신인 소천국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다. 여기에 농경 기술을 가진 금백조 여신이 들어오는 것이다. 수렵문명보다 농경문명이 발전한 단계임이 분명하지만, 소천국과 금백조의 갈등에서는 금백조 신이 우세를 점하여 윗자리(바람 위)를 차지하게 된다. 다음 아들신의 등장은, 산신이 되는 경우에는 단지 아버지 소천국과 마찬가지로 수렵생활을 영위하는 데 그치지 만 문곡성처럼 용궁모험과 강남천자국에서의 무공을 세우고 제주도로 귀환하는 경우에는 장수신, 곧 막강한 무신(武神)이 되어 등장한다.

제주에서 출생하였으나 제주 밖에서의 모험을 통해 앞선 문명세계의

기술을 터득한 이 신은 부모신에게마저 도전할 만큼의 힘을 과시하게 된다. 송당계 아들신들은 부모의 능력 중에서도 아버지 소천국의 면모를 많이 답습하지만 근본적인 직능에서는 아버지보다 한 단계 나아간 문명을 보여준다. 한편 별개의 당신이었다가 송당 신화와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서당 신화의 경우는 여성의 삶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으로써 좀 더 세분화된 문명을 보여준다. 특히 이 여신의 경우는 다산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원초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여성의 삶과 육아의 기능을 맡는다는 점에서는 좀더 분화된 기능을 보여준다. 이러한 송당계 신화의 분화단계만으로도 제주도 신당의 본풀이에서 제주문명사의 반영을 볼 수 있다. 사냥의 신→농경의 신→장수(將帥)의 신→육아의 신 등으로의 단계적 전개는 보편적인 신화발생의 단계와도 잘 부합한다. 더욱이 송당계 신화의 직계는 아니지만 송당 신화를 차용하여 변이시킨 세화리 본향당의 당신 천자또의 직능을 이해하면 신당의 당가르기의 의의는 더욱 풍부해진다. 세화리 당신 천자또는 다섯 살 나이에 세상의 모든 학문에 통달하여 천상과 저승을 넘나들며 학문으로 그 직능을 다하는 학문의 신인 것이다. 특히 이 신은 그 이름에서부터 한문 천자문을 달통한 데서 천자또라고 불리는 것이다. 유교적 교양을 학식의 근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이 신은 훨씬 후대에 융입된 당신이다. 하지만 그 본풀이에도 어김없이 송당 신화가 원용되고 있음은, 이 신화 역시 송당계 신화의 한 발전 단계에 속함을 보여주며, 그 중에서는 가장 후대의 것, 곧 가장 근래의 것으로 보인다.

## 2. 송당의 서당신 강진애기

송당계 신화에서 용궁공주신들을 모신 이렛당들은 금백조의 열여덟



아들과 정확히 짝을 맞추어서 마을마다 좌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아들이 좌정한 덕천이나 케내깃도가 좌정한 김녕에 이렛당이 있다는 조사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그런데 송당계 신화의 본고장인 송당리에 이렛당의 흔적이 있다는 점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동안 송당 마을에서 신당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곳으로 한정되었다. 송당 신화의 서두를 여는 구절인 “알손당 소로소천국, 셋손당 세명주, 웃손당 금백조”에서 소천국이 좌정한 곳이 알송당(아랫 송당)의 ‘굽은이 물(또는 고부 니마루)’이고 금백조가 좌정한 곳은 본향당이 있는 ‘당내’이다. 그리고 보통 괄호에 묶인 셋손당(사잇 송당)의 세명주는, 고대의 창조의 여신인 설문대 할망의 호칭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4)</sup> 그런데 송당에는 송당계 신화 말고 소위 송씨 할망계 신화도 있다.

신화의 계보를 정리했던 고대경의 작업에 잘 나와 있듯이, 송씨 할망 신 계열도 제주도 전역에 몇 개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sup>25)</sup> 송당 마을에서 보면 덕천리와 접경 지역에 있으며 송당과 덕천 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시는 사라흘 당이 그것인데, 사라흘 당은 사냥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냥의 신이 좌정하고 있다. 수렵의 신으로 엄연히 소천국이 있는데 또 다른 사냥신인 사라흘당을 주민들이 아직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어쨌든 사라흘당은 금백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경우 제주도 당신앙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송당 본향의 강력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송당 본향과는 무관한 수렵의 신이 터를 잡은 사라흘 당신까지 모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송당계 신화가 매우 중

24)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202쪽.

25) 고대경, 「신들의 고향」, 299쪽. “제주시 도두동, 애월읍 하가리, 광령리 등의 신화에는 김씨 할아버지가 송씨 할망과 함께 좌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송씨 할망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곳에 김씨 할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집권적인 특징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일신론적인 신앙은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주도 민속이 융성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다신 숭배의 습속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송당 마을에 이렛당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 학계에는 제대로 알려진 적은 없으나 송당 마을에는 분명히 이렛당이 존재한다. 송당의 큰 심방이었던 고대중 심방이 구송한 표선 옷당 본풀이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 당의 명칭은 ‘손당머리 강진역이(강진애기)’이다. 고대중 심방의 구연에 따르면 금백조와 살림을 분산한 소천국은 손당머리의 강진애기를 첩으로 삼아 살아간다.<sup>26)</sup> 송당머리(지명)에 강진애기 당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주민들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또한 그 신의 직능은 어린 아기의 치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sup>27)</sup> 송당머리 강진애기당은 송당신화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한 여신이 좌정한 당이고, 그 직능은 이렛당과 동일하게 어린 아이의 치병이나 출산 기원과 관련된 당이다.

그런데 송당에 있는 강진역이(강진애기) 신당은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풀이가 전하지 않고 있고, 그 신당도 현재는 폐당되었다. 우선 본풀이가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송당 신화 안에서 이당의 신화는 위상이 매우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송당계 본풀이에 이 신당의 흔적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까닭은 애초에 이 신당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주된 위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26)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26쪽. 토산 옷당 본풀이에 “너네 아방은 영아리친발디 강진역이 떠넘아기 호년호철을 호고 사느니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27) 2006년 음력 8월 13일에 필자는 옷송당의 광산 김씨 집안 제사에서 송당본향보존회 회장인 김호중 상단결과 면담하였다. 김호중 상단결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강진애기(강진역이) 당은 송당 머리에 있었으며 1960년대까지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다.

송당 신당의 맏인 심방이었던 고대중 심방의 구연에 이 신당의 이름이 전하고 있고, 현재의 송당리 주민들도 이 신당의 명칭과 위치를 기억하고 있음은 민속에서의 이 당의 존재를 명확히 해준다. 따라서 신당의 발생단계에서 이 신당은 나중에 생겨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소천국과 금백조가 각각 따로 좌정한 송당리에 여성과 육상의 기능을 담당한 서당(칠일당)으로서의 강진애기 당은 훨씬 후대에 생겨났을 것이다. 그것은 송당계 신화와 서당 신화가 결합하는 3차 분화 이후의 일일 것이다. 신당의 직능상에서 보아도 다른 마을들에서와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당의 소멸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송당 마을의 생활풍습의 변화에 미루어 보면 소천국당의 약화와 함께 비추어 짐작해볼 수 있다. 주민들의 신앙의 형태가 금백조당을 중심으로 단일화되면서 소천국당이 약화된 것처럼 강진애기당도 힘을 잃어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세습무당으로 막강한 권위를 가졌던 큰심방 고봉선 심방이나 그의 아들인 고대중 심방 이후로 송당 마을에서 큰심방의 대가 끊겼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본다. 신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근대화과정 속에서 점차 간소화된 것도 한 이유이다. 그러나 어쨌든 송당 마을 안에, 그것도 금백조 본향에서 가까운 곳에 이렛당이 있었다는 것은 송당계 신화와 이렛당 신화의 결합관계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것은 신화의 구조에서 신의 직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당계 신화에서 소천국이 수렵의 신을 상징하고 금백조가 농경의 신을 나타내며 아들 문곡성이 장수의 신, 즉 정치적 지배력을 나타내는 데 비해 이렛당신은 의술의 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것도 소아과의사의 직능을 담당한다. 일반신화에 나오는 삼승할망 본풀이가 생명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

는 여신인데 반하여, 서당신에서는 서당신이 삼승할망의 직능을 대리하고 있다.

## V. 결론

본고는 그동안 분석되어온 송당계 신당의 당 가르기와 신화의 내용 분석을 함께 살펴보면서 단일화된 전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첫째로 송당 신화에서 아들 신이 갈라져 나오는 방식은 단일하지 않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송당계의 아들신들은 용궁모험을 떠나는 경우와 바로 한라산의 산신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지역별로 본풀이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다. 둘째로 아들신과 며느리 신이 불화하는 원인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상세히 하였다. 멧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었다거나, 돼지털이 코에 박혔다거나, 또는 그 털을 구워먹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변이형을 가지는 화소들은 단지 육식의 금기라고 보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암시적이다. 그것은 육식의 금기 이전에 성적 일탈에 대한 암시인 경우가 많다. 물론 뚜렷이 다산성과 관련된 육식의 의미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소의 분석은 당 가르기의 일반원리로 보면 제주섬의 문명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송당계 신화와 서당 신화의 만남은 신화발생학적으로 볼 때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서당신화의 발생은 여성의 삶을 보살피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육아를 담당하는 신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런 분화는 송당계 신화의 계보에서 보나 문명사의 전개에서 보다 매우 의의가 깊다. 서당 신화는 송당 신화만큼이나 고향이었을 수도 있고 별개의 형태 이었을 수도 있

다. 하지만 그 직능이 뚜렷하고 중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송당에 까지 서당이 존재한 것이다. 본고에서 송당리에 존재했던 서당(이렛당)인 강진애기 당의 존재를 새로이 발굴하여 보고하는 것은 송당계 신화의 발생과 분화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몇 차례 걸쳐 이루어진 당 가르기와 새로운 직능을 가진 신의 발생이 상호 대응됨을 확인함으로써 송당계 신화의 체계에 대해 더욱 정교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대경 「신들의 고향」, 증명, 1997.
- 김진하,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2006.
-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제30호, 2007.
- 김진하, 「설문대 할망 신화의 변용과 송당 신화」, 『영주어문』 제13집, 2007.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채회주, 「리참고문」(미간행 초록).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초판 1972).
- \_\_\_\_\_,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Abstract

A study of the ways of ramification in Songdang myths

Kim, Jin-ha\*

The Songdang myth, known as the origin of Jejudo Shamanism's sanctuaries, is spread all over Jejudo island, and organizes its lineage among different villages. But in Songdang myth the ways of ramification and its derivation are not simple. The separation of myths from the root myth or the borrowing of its narrative are operated by the influence of geographical features and cultures in the village where the sanctuary is located.

The narrative and its structure of the myths originated from Songdang myth are organized by four gradations. The formations of newly born sanctuaries in neighbour villages are decided by the aspects of conflicts and divorce between god and goddess, including the taboo of meat-eating and a spouse's sexual deviation. In the narrative of Songdang myths the ways and stages of their division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evolution of Jejudo's civilization. Therefore newly enthroned gods and goddess represent more developed cultures in Jejudo.

Key Words

Songdang myth, ramification of the sanctuary, taboo of meat-eating stage of civilization, element of narrative

---

\* Yangchung High School

교신: 김진하 158-0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6동 양정고등학교  
(E-mail : jobana@hanmail.net 전화 : 010-9541-3880)

최초 투고일 2007. 12. 22

최종 접수일 2008. 1. 17